

# 우리말과 글꼴로 만든 감성, 지식재산으로 지킨다

- 특허청, 우리말 우수상표·아름다운 한글 글자체 디자인 공모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제10회 우리말 우수상표 선정대회와 제1회 아름다운 한글 글자체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고 8. 4.(월)부터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리말 우수상표 선정대회는 순우리말 상표의 출원과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후원한다. 특히 올해는 제579돌 한글날을 맞아 제1회 아름다운 한글 글자체 디자인 공모전을 함께 개최하여 우리말과 한글의 문화적·재산적 가치를 더 깊이 되새겨볼 예정이다.

공모 접수는 8. 4.(월)~8. 29.(금)까지 진행되며, 아래 QR코드 접속을 통해 누구든지 본인 또는 타인의 등록상표 및 디자인을 응모·추천할 수 있다.



응모 및 추천 대상 상표·디자인은 2025년 8월 현재 등록이 유효한 우리말 상표 또는 글자체 디자인이다. 타인의 상표를 모방한 상표, 악의적 상표선점 행위 의심자가 보유한 상표, 심판·소송 등 분쟁 중인 상표,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표, 유사 대회에서 이미 수상한 상표는 제외할 예정이다.

접수된 상표 및 디자인에 대해서는 국립국어원에서 추천한 국어전문가, 브랜드 업계 전문가, 글자체 디자인 전문가 등이 우리말의 고유성, 브랜드 가치 및 한글글자체의 조형성, 심미성, 독창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후, 아름다운 상표(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1점), 고운 상표(특허청장상 1점), 정다운 상표(국립국어원장상 5점) 및 아름다운 한글디자인(특허청장상 1점), 으뜸 한글 디자인(특허청장상 1점)을 선정하여 10월 한글날을 전후해 시상한다.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올해는 우리말 우수상표와 한글 글자체 디자인을 함께 시상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면서, “우리의 말과 글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예술성까지 품고 있음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상표심사정책과	책임자	과장	엄태민	(042-481-5265)
		담당자	사무관	김기호	(042-481-3310)
	주무관		허준호	(042-481-5342)	
	생활디자인심사과	책임자	과장	양승태	(042-481-5354)
담당자		사무관	김현범	(042-481-5157)	
	주무관	신연우	(042-481-5691)		